

논술 · 면접 기출문제 분석 (1)

2017학년도 대학 신입학생 수시모집 일반전형 면접 및 구술고사 [인문학]

※ 제시문을 읽고 문제에 답하시오.

(가) '룩키'는 칼을 갈고 있었다. 그는 사슴시체를 배가 위로 오도록 뒤집고 뒷다리를 펼쳤다. 룩키가 일을 시작하는 것을 보고 '타요'는 사슴의 눈을 다시 쳐다보았다. 그리고 겹옷을 벗어 사슴의 머리를 덮어주었다. 룩키는 뱃속 내용물이 쏟아지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배를 갈랐다. 타요는 사슴의 간과 심장을 무명천으로 감쌌다. 이른 겨울 달이 그들 앞에서 떠오르고 있었다. 그리고 달을 좇아 쌀쌀한 바람이 불어왔고, 발과 손을 파고들었다. 타요는 보따리를 좀 더 꼭 껴안았다. 그는 보름 달의 크기와 산기슭 언덕을 타고 넘어서는 차가운 바람에 겸손해졌다. 사람들은 사슴이 그들을 사랑하기에 자신을 내어준다고 말했다. 그리고 죽어가는 사슴의 찾아드는 심장이 자신의 손을 덮히자 타요는 사슴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다.

(나) 자연보전주의자가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定義)를 여럿 읽어봤고, 나 자신도 몇 개 써보기도 했다. 하지만 가장 좋은 정의는 펜이 아니라 도끼로 쓴 것이 아닐까 싶다. 나무를 베거나 혹은 무슨 나무를 벨지 결정하면서 생각하는 일이 바로 그거다. 보전주의자란 도끼질을 할 때마다 땅 표면에 자신의 서명을 쓰고 있음을 겸손히 깨닫는 사람이다. 난 언제나 소나무보다는 자작나무를 베어낸다. 왜 그럴까? 소나무 아래엔 언젠가 '트레일링 아부투스, 수정란풀, 노루발, 린네풀' 등이 자라겠지만 자작나무 아래에는 기껏해야 '용담'이나 있을 뿐이다. 소나무에는 언젠가 '도가머리딱따구리'가 등지를 틀겠지만 자작나무에는 '털오색딱따구리'나 있으면 다행이다. 사월이 되면 소나무 사이의 바람은 나를 위해 노래를 부르겠지만 같은 시기에 자작나무는 그저 덜거덕거리는 헐벗은 나뭇가지일 뿐이다. 내 편애를 설명할만한 이런 이유들은 중요하다. 이런 것들이 도끼를 쓰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예측하고 비교하고 판단해야만 하는 이득과 손실이다.

(다) 생명공학은 여러 방면에 적용될 수 있다. 각종 독소에 대한 저항력을 향상시키는 유전자를 삽입하여 유전자 변형 곡물을 상품화할 수 있다. 그리고 변형된 조직 구성을 가진 곡물을 동물의 사료로 사용하면 보다 효율적으로 육류를 생산하면서도 동물이 배출하는 메탄가스는 감소시킬 수 있다. 또한 인간 질병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는 데에 있어서 유전적으로 변형된 동물을 사용하면 보다 정확하고 적합한 모형을 구성할 수 있고, 아울러 기존에 사용했던 동물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은 동물로 연구를 진행할 수 있다.

[문제 1] (가), (나), (다)에 나타난 자연에 대한 태도를 비교하시오.

[문제 2] 인류가 직면한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가), (나), (다) 중 지향해야 할 자연에 대한 태도는 무엇인지 자신의 견해를 제시하시오. 그리고 자신이 선택하지 않은 태도를 지닌 사람이 제기할 수 있는 비판을 고려하고 이에 어떻게 대응할지 설명하시오.

[문제 3] (가)의 타요의 '겸손함'과 (나)의 화자의 '겸손함'을 비교하여 두 제시문에 나타난 자연에 대한 태도의 차이점을 설명하시오.

처음으로 같이 풀어볼 문제는 서울대학교 2017년 수시모집 기출문제입니다.

먼저 제시문을 찬찬히 읽어봅니다. 제시문 내용 파악은 기본이고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제시문간의 관계를 파악하는 일입니다.

그 둘이 서로 반대되는 내용일 경우 이해하기 가장 쉬울 것입니다. 하지만 비슷하면서도 미묘한 차이를 보이는 위 같은 사례도 있습니다.

제시문 (가)~(다)는 어떻게 다를까요? [문제 1]은 친절하게도 **자연에 대한 태도**를 기준으로 보라고 합니다.

이 세 제시문 모두 자연을 이용한다는 점에서는 같습니다. 하지만 어떤 태도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키워드를 중심으로 제시문(가)를 보겠습니다

“...(중략)...사슴의 눈을 다시 쳐다보았다. 그리고 걸옷을 벗어 사슴의 머리를 덮어주었다...(중략)...사람들은 사슴이 그들을 사랑하기에 자신을 내어준다고 말했다. 그리고 죽어가는 사슴의 젖아드는 심장이 자신의 손을 덥히자 타요는 사슴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다”

(나), (다)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자연(사슴)에 대한 공감이 드러납니다.

제시문(나)도 보겠습니다

“사월이 되면 소나무 사이의 바람은 나를 위해 노래를 부르겠지만 같은 시기에 자작나무는 그저 덜컹 거리는 헐벗은 나뭇가지일 뿐이다...(중략)... 이런 것들이 도끼를 쓰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예측하고 비교하고 판단해야만 하는 이득과 손실이다.”

(가)와는 다른 느낌을 가진 키워드가 나옵니다. (나)의 화자는 소나무 대신 자작나무를 베어내는 이유가 “자작나무 아래에는 기껏해야 용담 이나 있을 뿐”이며 “털오색딱따구리나 있으면 다행” 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소나무를 베지 않았을 때 이득이 더 크기 때문에 베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문제 3] (가)의 타요의 '겸손함'과 (나)의 화자의 '겸손함'을 비교하여 두 제시문에 나타난 자연에 대한 태도의 차이점을 설명하시오.

우선 여기서 문제 3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가)의 겸손함은 이렇습니다.

“이른 겨울 달이 그들 앞에서 떠오르고 있었다. 그리고 달을 쫓아 **쌀쌀한 바람**이 불어왔고, 발과 손을 **파고들었다**. 타요는 보따리를 좀 더 꼭 껴안았다. 그는 **보름달의 크기**와 산기슭 언덕을 타고 넘어서는 **차가운 바람에 겸손**해졌다.”

왜 타요가 겸손할까요? 타요는 큰 달을 봅니다. 쌀쌀한 바람이 발과 손을 파고듭니다. 이 때 깨달은 겸손이란 대자연 앞에서 인간이 느끼는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자연 앞에서 작은 존재인 인간은 자연이 준 선물인 사슴에도 감사하고 사랑을 느끼게 됩니다. 비록 타요 역시 자연을 이용하며 살아가는 존재이지만 세 제시문 중 가장 순응적인 태도를 지닌 인물임을 알 수 있습니다.

(나)의 겸손함을 볼까요.

나무를 베거나 혹은 무슨 나무를 벨지 결정하면서 생각하는 일이 바로 그거다. 보전주의자란 도끼질을 할 때마다 땅표면에 **자신의 서명을 쓰고 있음을 겸손히** 깨닫는 사람이다. 난 언제나 소나무보다는 자작 나무를 베어낸다. 왜 그럴까? 소나무 아래엔 언젠가 ‘트레일링 아부투스, 수정란풀, 노루발, 린네풀’ 등이 자라겠지만 자작나무 아래에는 기껏해야 ‘용담’ 이나 있을 뿐이다.

화자가 겸손한 이유는 앞 뒤 문장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도끼질을 할 때마다 땅표면에 자신의 서명을 쓰고 있다고 말합니다. 뒷 문장이 그것을 자세히 설명합니다. 어떤 나무를 베나에 따라서 그 아래 자랄 어떤 식물을 수확물로 거둘지가 결정되기 때문이죠. 변함 없는 자연법칙을 화자는 그저 따를 수 밖에 없기에 겸손함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둘의 차이는 다음과 같이 정리됩니다.

(가)의 타요는 자연 앞에서 **나약한 인간으로서 겸손을** 느낍니다. 이는 자연의 섭리에 따라서 사는 인간이 느끼는 감정입니다. 사슴을 사냥하면서 사슴의 사랑을 느끼는 것도 자연에 대한 이해와 분석이 아닌 섭리에 따라 주어진 선물에 감사하는 마음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나)의 화자 역시 자연의 섭리에 따라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가 느끼는 겸손은 다릅니다. 자연의 섭리를 거스를 수는 없지만 그가 어떻게 이용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가 느끼는 겸손은 자신의 결정도 자연의 섭리에 따라야 한다는 것에 대한 감정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문제1을 다시 볼까요.

이제 제시문 (다)를 보겠습니다.

생명공학은 여러 방면에 적용될 수 있다. 각종 독소에 대한 저항력을 향상시키는 유전자를 삽입 하여 유전자 변형 곡물을 상품화할 수 있다. 그리고 변형된 조직 구성을 가진 곡물을 동물의 사료로 사용하면 보다 효율적으로 육류를 생산하면서도 동물이 배출하는 메탄가스는 감소시킬 수 있다. 또한 인간 질병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는 데에 있어서 유전적으로 변형된 동물을 사용하면 보다 정확하고 적합한 모형을 구성할 수 있고, 아울러 기존에 사용했던 동물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은 동물로 연구를 진행할 수 있다.

오늘날 인간이 자연을 이용하는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인간은 주어진 자연 환경에 구속되지 않습니다. 유전자를 조작해 보다 상품성있는 생물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결국, (가)에서 (다)로 갈수록 인간은 보다 적극적으로 자연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에 대한 태도도 변해갑니다. (가)에서는 자연에 경외감을 느끼던 인간은 (나)에서는 그 섭리를 적절히 이용할 줄 알게됩니다. (다)에서는 아예 자연의 섭리에 도전하는 태도 변화를 보여줍니다.

이 문제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가), (나), (다)는 인간이 자연을 이용하는 태도의 변화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에서 화자는 생존을 위해 동물을 사냥하던 단계의 인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때 인류에게 자연은 경외의 대상이며 자연의 섭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인간은 자연에 사랑의 감정에 가까운 감사를 느꼈습니다. (나)에서 화자는 자연의 섭리를 점차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농경 단계에는 이르지 못했지만 식물 채취에 있어서도 스스로가 생산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아는 단계입니다. 비록 적극적인 단계에는 이르지 못했지만 자연을 이용 대상으로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다)에서 인간에게 자연은 완전한 정복의 대상입니다. 자연의 섭리라고만 여겨졌던 유전자 구조도 얼마든지 변형시켜 새로운 생물을 만드는 것도 가능하다는 태도입니다. 여기서 자연은 인간의 편리를 위해 효율적으로 통제될 수 있는 대상에 불과합니다.

이제 마무리 차원에서 문제2 풀이에 돌입합니다.

(가), (나), (다) 어느 것 역시 답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면접관들이 꺼내올 반박을 생각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이 문제를 낸 의도와 관련있는 제시문은 무엇일까요?

인류가 직면한 문제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인간의 자연에 대한 개입이 극심해진 오늘날에 대한 문제 의식이 출제 배경일 것입니다. 결국 수험생은 (다)의 입장에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에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다)의 입장을 옹호할 경우 : 자연에 대한 인간의 적극적 개입을 인정하면 그 같은 개입이 초래할 위험에 대한 반박이 필요합니다. 그에 대한 반박은 인간이 개입해 재앙을 초래한 사례도 없지 않지만 결과적으로는 인간 생활에 도움이 되어 왔다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다)의 입장에 반대할 경우 : 인간이 자연에 개입을 하는 것이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 때문에 반드시 인간뿐만 아니라 동물들의 생활 수준도 높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생활에 있어서도 유전자 조작 등이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예시) 저는 인류가 직면한 문제를 고려할 때 결국 (다)의 태도에 따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인류는 과거에 비해 높은 생활수준을 영위하고 있지만 그렇지 못한 이들이 많습니다. 제3세계의 많은 인류가 식량난으로 고통 받고 있습니다. 단순히 자연상태의 생산력으로 이를 극복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GMO라 불리는 유전자를 개량한 식물들이 없다면 식량난으로 인한 문제는 전세계적인 문제일 것입니다. 아울러 인간 수명이 늘면서 과거에는 문제가 되지 않았던 많은 질병들이 새롭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유전자 재조합을 비롯한 다양한 생명공학 기술에 대한 연구가 필요합니다.

물론 이에 대해서 (가) 혹은 (나)의 입장을 택하는 이들은 자연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이 야기할 수 있는 부작용을 근거로 비판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인간의 기술은 많은 재앙을 낳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 원자력 발전도 한 예가 됩니다. 원자력 발전은 효율적으로 많은 에너지를 생산했지만 발전소 자체에 사고가 생겼을 때 인간은 물론 자연을 수십년간 황폐화하는 결과를 낳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부작용이 있다고 해서 기술 개발을 막는 것은 그 기술로 인해 더 많은 인류가 혜택을 보는 일을 막는 일이 됩니다. 때로는 실패하기도 했지만 인간 기술은 결국엔 인간 삶을 이롭게 하는 방향으로 진화해왔고 우리 역시 그 혜택을 누리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질문 및 상담
카카오톡 : thelecturer
오르비 쪽지 남겨주세요

